



즉시 배포용: 2020년 3월 8일

ANDREW M. CUOMO 주지사

**CUOMO** 주지사, 뉴욕주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추가 사례를 16건 확인, 뉴욕주 합계는 총 105건

*주지사는 연방 정부에 검사 능력 확대를 위한 자동 및 수동 테스트 승인 요청*

*청소 용품 및 검사 장비의 조달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어제 비상사태 선포*

*주지사는 재택근무, 텔레커뮤팅 및 밀집된 공간을 피하여 가능한 한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도록 권장*

Andrew M. Cuomo 주지사는 오늘, 뉴욕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추가로 16건 확인했으며, 이로써 뉴욕주 합계는 총 105건이 되었습니다. 주지사의 마지막 최신 소식 발표 이후 확인된 16건의 새로운 사례 중 12건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, 뉴욕시 브롱크스 1건, 나소 1건, 서퍽 1건, 얼스터 1건입니다. 또한, 오늘 주지사는 연방 정부에 뉴욕주의 검사 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민간 실험실과 자동 및 수동 검사를 신속히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그는 또한 뉴욕 주민들이 집에서 일하고 텔레커뮤팅을 하며 가능한 한 인구 밀도가 높은 공간을 피하여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도록 장려했습니다.

확진 판정을 받은 뉴욕주 총 105명의 환자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웨스트체스터: 82

뉴욕시: 12

나소: 5

서퍽: 1

록랜드: 2

얼스터: 1

사라토가: 2

**Cuomo**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"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검사하고 있으며 병원 및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신속하게 자원을 동원하고 있으나 연방 정부는 계속 느리게 대응하고 있습니다.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태도이며, 오늘 이러한 개인 실험실을 승인해야 변화하는

상황에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. 현재 바이러스보다 더 나쁜 것은 공포의 전염이며, 이러한 추가 시설을 사용하면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더 많은 사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"

Andrew M. Cuomo 주지사는 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브리핑에서 뉴욕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[비상사태를 선언](#)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비상 상태 선언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우선하여 수행합니다.

- 청소 용품, 손 소독제 및 기타 필수 자원의 신속한 조달
- 의사 및 간호사 이외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
- 검사 소모품 및 장비의 신속한 조달
- 신속한 직원 교육
- 실험실 공간의 신속한 임대
- EMS 직원이 병원 이외의 격리 장소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허용
- 가격 사기 및 집행 조사를 위한 명확한 근거 제공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[www.governor.ny.gov](http://www.governor.ny.gov)  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[press.office@exec.ny.gov](mailto:press.office@exec.ny.gov) | 518.474.8418

[구독 취소](#)